PEOPLE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한국농어촌공사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국어 교육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나주배원예농협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언어 장벽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나주배원예농협 소속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동신대학교 국제한국어학과와 협력해 기본 회화, 안전 수칙, 농작업 관련 실무 용어 등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외국인 근로자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한국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여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안전환경 조성시설 점검 실시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최근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환경 조성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시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취약지역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점검으로 올해 3회째 실시됐다.

시민참여단은 봉산동 어항단지 입구와 국동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2곳을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와 비상벨, 편의시설 등을 점검했다.

또한 국동 롯데마트 인근에 조성된 '환경디자인 적용 안심거리'의 조명, 표지판, 시설물 상태 등을 시민의 시각에서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논의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향후 자체 회의를 거쳐 개선사항을 제출할 예정이며, 시는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순천미인 농협봉사단
매실 수확 합동 농촌 일손돕기

순천미인 농협봉사단은 최근 순천시청 농정혁신국 직원들과 함께 순천시 상사면에서 매실 수확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합동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를 시작으로 순천미인 농협봉사단은 순천시, 농축협 임직원, 관내 농협 여성조직(농주모, 고주모) 등과 함께 순천시 곳곳을 찾아 일손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농가를 돕기로 했다.

순천미인농협봉사단은 NH농협 순천시지부를 비롯한 순천시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임직원 9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달 일정액을 모아 순천시 다둥이꿈키움 사업,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재해피해 복구사업 등 2013년부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전남도-시군-유관단체 청렴 다짐…"청렴 전남 원동력"

'제2회 청렴페스티벌' 1000여명 참석
토크콘서트·공연·퀴즈 풀기 등 진행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 추진

전남도는 16일 도청에서 '제2회 청렴페스티벌'에 열어 도·시군, 공직유관단체 등이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청렴페스티벌은 '실천하는 청렴'을 주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 소속직원, 시군, 공직유관단체 등 1000여명이 토크콘서트, 청렴의무를 내용으로 한 연극, 밴드 공연, 청렴교육, 청렴 관련 퀴즈풀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부패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현장 참석 공직자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핸드폰을 통해 무대 화면에 송출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보면서 소통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내용으로 한 연극, 밴드 공연 및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 청렴 관련 퀴즈 풀기 등 공직자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치러졌다.

전남도는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부패 요인 제거로 청렴 체감 수준 향상 △청렴과 공정의 내재화로 조직문화 개선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구축 및 청렴 역량 강화 △청렴문화 확산 및 대외협력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40개의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조직의 윤리는 개인의 청렴에서 시작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곧 조직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며 "전남도, 시군, 유관단체 등 모든 공직자가 한데 모여 청렴을 즐기는 이 시간이 청렴 전남을 향한 큰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된 3등급을 받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2회 청렴페스티벌' 행사에서 청렴실천을 주제로 공직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 준수… 공정보도 등 강조"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집·광고·판매 윤리교육 실시
이승배 부사장 "객관적·정확한 취재, 공정보도 힘써야"

광남일보는 16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원 보호와 공정보도, 제목 선정 등을 강조했다.

편집기자는 취재기자와 협의를 거쳐 알맞은 제목을 선정하고,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재기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 만큼 용모와 태도에서도 단정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윤리강령 교육에서는 부당광고와 선정적인 문구를 배제하고 규정 광고 단가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광남일보는 16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하는 선정적인 문구는 지양하고 규정 광고단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무가지 배포는 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구독 유도를 위한 금품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취재를 바탕으로 공정보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과 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의 공적 사명을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으로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가 처음 제정해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이를 도입했다.

이후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채택해 현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광주 서구 김성배 부구청장 취임
"주민 가까이서 공감하는 행정 추진"

김성배 전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이 16일 서구 신임 부구청장으로 취임했다.

김성배 부구청장은 1996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시 문화정책관, 관광도시과장, 관광진흥과장, 회계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정책기획과 현장 실행 모두에 강점을 갖춘 실무형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까지는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을 역임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와 관광 기반 확충에 힘써왔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정책 감각을 겸비한 김 부구청장은 앞으로 주민 일상과 맞닿은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구정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배 부구청장은 "광주의 중심이자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착한도시 서구'에서 함께 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구 공직자와 함께 주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며 민선8기 서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농협은행 광주본부, 광주NGO시민재단에 쌀 기부
930만원 상당 쌀 300포 전달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10kg 쌀 300포(총 930만원 상당)를 광주NGO시민재단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쌀 기부는 지역 내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쌀은 재단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응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함께 돕는 '따뜻한 금융'을 지속 실천하고 있다

장재영 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이번 쌀 나눔이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에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전 목포지사·목포전력지사, 청소년 에너지캠프 운영

한국전력 목포지사와 목포전력지사는 최근 공공기관 진로를 희망하는 목포 영흥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전력망 확충 등 전력사업 공감대를 형성하는 '2025년 전력사업 이해증진 청소년 에너지캠프'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목포지사·목포전력지사에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의 영업, 송·배전 업무 소개와 영업창구, 남악변전소 등을 견학하고 전력설비의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또 김국진 목포지사장과 김정수 목포전력지사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력의 생산부터 가정까지 보내는 과정 △전력망의 구조 및 건설 이유 △지자체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 노력 △소외계층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봉사활동 등 한전의 역할을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캠프는 목포지사·목포전력지사의 협업으로 실시한 실질적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전력망 건설 등 전력사업 현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청소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광주환경공단, 하수 배출 요령·지역 소멸 위기 대응 캠페인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이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요령'과 '저출생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일상 속 하수 배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저출생 문제로 인한 광주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피켓 등을 활용한 대면 활동을 통해 생활하수 처리 방법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시민들에게 직접 안내했으며, 환경 실천과 인구 위기 대응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병수 이사장은 "깨끗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경 보호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